

“국민의 기본권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헌법적 가치 구현되길”

보안관찰 신고 거부 무죄 확정 강용주씨 인터뷰

인권운동가이자 의사인 강용주(56)씨는 이름보다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라는 수식어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그는 간첩으로 몰려 혹독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사실상 ‘간첩임을 자인하고 반성한다’는 내용의 전향서(준법서약)를 쓰라는 군부독재의 요구를 거부해 14년이나 감옥에 갇혔었다. 서류 한 장 쓰면 될 일을 ‘양심’에 반한다며 하지 않았다. 자유의 몸이 됐으나 ‘재범 우려’ 인물로 분류돼 보안관찰 대상자가 됐다. 그는 3개월마다 행적을 신고해야 하는 이 의무도 거부했다. 결국, 재판에 넘겨졌으나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이 항소를 포기해 강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무려 18년 동안 보안관찰법 폐지 운동을 벌여온 그의 얘기를 들었다.

-검찰의 항소포기로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확정됐는데.

▲1985년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전향서 작성을 거부하는 바람에 14년간 감옥에 갇혔던 최연소 비전향장기수였구요. 1999년 석방됐지만 법무부에서 ‘재범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년의 보안관찰 처분을 내렸고,

18년 동안 7번이나 갇신했어요. 보안관찰 처분을 받으면 3개월간의 주요 활동을 관찰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저는 이를 따르지 않았고 2002년·2010년에 이어 지난해 세 번째로 기소됐어요.

법원은 “신고의무 이행을 거부했다는 것 자체는 재범 위험 판단의 자료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

간첩 몰려 준법서약 거부 14년간 억울한 옥살이

보안관찰법은 헌법에 위배되는 유신시대 악법

결을 계기로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가치가 구현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최연소 비전향장기수’로 불린다.

▲광주 동신고 3학년이던 1980년 5월, 광주항쟁 당시 시민군으로 전남도청을 지키다가 계엄군이 진입해오자 두려움 때문에 달아났어요. 그 부채의식 때문에 전남대 의대에 진학해서도 학생운동을 했고, 1985년 안기부의 모친 고문을 통해 저는 ‘구미유학생 간첩단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조작됐습니다.

전향서에 도장만 찍으면 바로 나갈 수 있다는 회유를 받았지만 14년을 버텼습니다. 유학은 커녕 서울에도 못 가본 저는

‘조작된 거짓’을 인정할 수는 없었어요. 어떤 폭력에도 저의 존엄성만은 지키고 싶었어요. 결국, 1999년 김대중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특별 사면으로, 내 힘으로 교도소 문을 나왔습니다.

-왜 보안관찰법 폐지투쟁을 하나.

▲민주화된 세상에서 복학하고, 의사가 됐지만 나이에겐 여전히 나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14년 옥살이는 석방 후에도 완전히 끝 나지 않았어요. 출소 이후 19번째 보안관찰법이라는 감옥이 에워싸고 있었으니까요. 스스로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해야 하고,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범죄자가 되는 게 보안관찰법입니다. 명백한 인권침해지



요. 형식적으로 몇 자 적어 신고만 하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일부러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니다. 사람의 일거수 일투족을 통제하는 것은 민주사회가 당연히 보장해야 할 인간의 기본권을 짓밟는 명백한 폭력입니다.

-법원은 보안관찰법이 위헌은 아니라고 한다.

▲보안관찰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유신시대의 악법일 뿐입니다. 이미 UN 등 국제사회와 국가인권위도 법원이 아닌 행정당국의 자의적인 해석(재범 우려)을 바탕으로 하는 보안관찰 제도의 폐지나 개선을 권고한 상황입니다. 1심 법원이 보안관찰법 제도 자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은 아쉬움이 납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소년들과 후원자의 만남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남본부

인재양성 지원사업 전달식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청소년들과 후원자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은영)는 최근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 회의실에서 무안후원회(회장 이현준)와 담양후원회(회장 권애영)가 참석한 가운데 인재양성지원사업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2018 인재양성지원사업 지원현황 보고, 후원금전달식, 인재양성증서 수여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양태성(첼로), 정혜원(육상), 이원경(정구), 장가백(바이올린), 장신행(첼로), 이하늘(기타), 조용환(야구)군 등 22명의 학생들이 후원자로 선정됐다. 8번째 어린이재단 후원을 받으며 음악



공부를 하고 있는 바이올린 장가백·첼로 장신행 양 자매는 초록우산 드림오케스트라와 후원자를 만나 꿈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현준 어린이재단 무안후원회장은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자, 꿈을 가진 지역인재”이라며 “인재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후원회에서 적극

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은영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장은 “청소년들을 위한 재단 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손길을 함께 해주신 후원자들에게 감사드리며, 더 많은 아이들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힘써 도와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은혜기자 ej6621@kwangju.co.kr

코레일 광주본부장에 정구용 처장 임명

코레일 광주본부 제7대 광주본부장에 정구용(52) 코레일 기획조정실 경영관리처장이 임명됐다.

정 신임 본부장은 1994년 서울철도차량정비장을 시작으로 코레일 본사 기획관리실, 전라기획팀, 대전차량융합기술단 경영인사처장 등을 역임했다. 5일 열린 취임식에서 정 본부장은 철도 공공성 강화, 더욱 안전한 철도구현, 상생과 배려의 조직문화, 변화와 혁신의 선두 등을



주요 경영방침으로 제시했다.

정구용 본부장은 “국민의 편익을 증대하기 위한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과 상

생·협력하며 호남권 지역 발전에 코레일 광주본부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유용운 구례군청 민원실장

조선대 강단 선다

유용운 구례군청 종합민원실장이 최근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행정학과 초빙객원교수로 임용돼 신학기부터 행정학 분야를 강의한다.

유 실장은 행정학박사로 33년간의 행정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행정 이론과 실무 경험을 겸비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지방행정과 지방자치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학생들에게 호응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유 실장은 지난 2005년도부터 광양보건대와 순천대, 조선대 등에서 겸임교수로 10여 년간 출강했으며 지방공무원교육원과 중·고등학교 등에서 기능재부 강의를 해왔다.

/구례=이진택기자 ljtk@kwangju.co.kr

한승훈 호남대 교수

황해자유구역 관광전문가 위촉

호남대학교 한승훈(사진) 관광경영학과 교수와 경기도청 황해경제자유구역 관광투자 분야 전문가로 위촉됐다.

한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잠재 투자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경기도는 관광 분야 외에도 정책, 법률, 투자유치, 개발, 의료, 물류, 자동차, 화학 등 다양한 분야별로 각 5명 이내의 전문가를 위촉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위 광주교도소 방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김덕환) 소속 보호위원연합회(회장 오방용)는 최근 광주교도소를 방문, 수용자를 위해 간식용 빵 2000개(100만 원 상당)를 전달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공>

코코넛-광주 남구 결식아동돕기 협약



(사)코코넛(대표 박장웅)은 최근 광주 남구지역 내 결식아동들을 돕기 위해 광주시 남구와 협약을 맺었다. 코코넛은 협약을 통해 지역 내 저소득 한부모 가정 15세대에 올해 12월까지 밀반찬을 제공할 예정이다.

<(사)코코넛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6 FAX 062-222-4938, 222-4918

학숙

▲김형순(해양도시가스 사장)·오영희(교사)씨 장남 태균군 신음섭·정경남씨 장녀 고은양=4월 7일(토) 오후 3시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8 아모리스 역삼 GS타워 1층 아모리스홀.

▲김성두(건설업)·이순덕씨 장남 용태군 최승욱(동양철강 대표)·김선영씨 장녀 화정양=11일(일) 낮 12시10분 라페스타 웨딩홀 4층 디아�파울.

알림

▲장흥군 풍수지리 무료공개강좌=명당, 전월주택, 수맥, 영상강의 8일(목) 오후 7시 장흥 청소년수련관 1층 강의실 문의 010-8000-3190.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광주대 풍수지리학 무료 강좌=양택, 음택, 수맥, 나경/입향론, 비결록명당, 장법요강등이론과현상 24일(토) 오후 1시30분~5시 광주대 호심기념도서관 5층 010-3609-8117.

▲월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무로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용으로 음향장비(엘프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 여부 결정 010-7274-4321.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홍탁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 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061-285-1161.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출 및 위기 청소년 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1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대한사회복지회 우리집=미혼부모

상담 및 미혼모자가가족복지시설 입소 안내, 학생미혼모 단기위탁교육 기관으로 학력 인정, 무료의료지원 및 속식보호 062-232-1313.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시 동구 준법로3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습관성도박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 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한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모집

▲남부대 풍수지리 무료공개강좌=3일(토)오후 1시30분~6시 남부대 산학관 3층 세미나실 명당, 전월주택, 수맥, 영상강의 문의 010-8000-3190

▲광주향교 한문수강생 모집=개강 3월 5일. 매주 월,수,금 2시간, 중급반, 초급반 각각 40명 선착순 모집 062-

672-7008,010-4329-0205.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찾아가는 평생교육지원 모니터단’ 모집=평생교육에 관심이 있고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활동이 가능한 만30세 이상 광주광역시 거주자 30명. 3월 5일(월)까지 방문접수 가능. 문의 062-600-5243.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한 기간 위탁할 인연 상담 062-351-1206.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

▲푸른길통통문화마을 회원=푸른길지킴이 활동을 함께하실 분 지원 가능(상시모집) (사)우리문화예술원 062-523-0474.

부음

▲장인석씨 별세 장민태(뉴블란스 세정점)·승태(순천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 전 무등일보 무등이 시사만화가)·금태(경기도 포천시 미래성장사업담당)·운태(M스튜디오 순천점)씨 부친상=발인 7일(수) 광주시 북구 각화동 그린장례식장

▲김선권씨 별세 광영근(전 광주일보

월간애향)씨 빙부상=발인 6일(화) 광주 그린장례식장 신관 402호 062-250-4455.

▲장의순씨 별세 이동명(전 광주일보 사진부장)씨 빙모상=발인 7일(수) 광주 금호장례식장 201호 발인 062-227-4381.

▲선순씨 별세 황승중·희경·경선·현정씨 모친상 배미영씨 시모상 나가찬·이중선·정운주씨 빙모상=발인 6일(화) 조선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소 062-231-8902.

삼가 故人之 冥福을 빕니다	
<p>201호 故장인순 남(여/89세)</p> <p>子/子婦: 김재열/인정례, 재인/씨현신, 재진/고상임, 재연/희옥자, 경기/김영애</p> <p>女/婿: 김경자, 덕자/이동명</p> <p>孫: 김보현, 장현, 남희, 태영, 문현, 수현, 덕현, 하녀, 하나, 미나, 지영, 기영, 나경희, 이현승, 현지, 서연</p> <p>·발 인: 3월 7일 ·장 지: 나주 문림매장</p>	<p>402호 故박창원 남(남/66세)</p> <p>子/子婦: 박상용</p> <p>女/婿: 박민영/김동진, 경민, 미연</p> <p>孫: 김서연</p> <p>未亡人: 최현숙</p> <p>·발 인: 3월 6일 ·장 지: 영락공원</p>
<p>101호 故이박선 남(여/84세)</p> <p>子/子婦: 김장일/오수자, 김석균/이수연</p> <p>女/婿: 김은실/박정호</p> <p>·발 인: 3월 6일 ·장 지: 영락공원</p>	
<p>함께 할 10년. 함께 할 100년 금호장례식장</p> <p>대표이사 구 제 길</p> <p>062-227-4000</p> <p>www.mykumho.com</p>	